

# 양보경 김현명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종회 방문



권행완 편집국장, 김현명 공동위원장, 권영찬 회장, 양보경 공동위원장, 권오상 사무총장, 김선홍 강리도저지(왼쪽부터)

양보경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전 성신여대 총장)과 김현명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전 이라크 대사)을 비롯하여 김선홍 강리도 저자(전 외교관) 등이 8월 25일 10시 30분 대종회를 방문하여 권영찬 대종회 회장과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과 지도의날 행사와 강리도 등에 대해 대담했다.

권영찬 회장은 강리도 책을 선물로 받아 강리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책까지 주시니 찬찬히 내용을 들여다보고, 안동권씨 1100주년 기념사업에 강리도의 발문을 쓰신 양촌 권근 선생에 대해 자세하게 수록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양촌 선생을 지도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보경 공동위원장은 양촌 선생이 천상분야열차 지도 천문도에도 발문을 쓰셨다.

고궁박물관에 석곽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숙종 때 국가에서 다시 만든 것이다. 발문을 남겨놓은 지도는 거의 없다. 숙종 때는 영의정 최석징이 발문을 썼다. 태조 때 제작했던 천문도를 숙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그대로 따라 한다. 태조 이성계를 본받아서 천문도 틀판을 만든 것이다.

권영찬 회장은 이탈리아 피렌체 밀라노 박물관에서는 흉보 동영상을 만들어 흉보

하는데 양촌 선생을 지도제작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선홍 저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지도 제작자는 지도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양촌의 기록문을 보면 지도에 대해 숙고하고 있고, 개인의 감정과 감회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촌의 작품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양촌 선생이 강리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물에 발문을 남겼는데 그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강리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천문도에 쓴 발문에는 거의 태조 이야기이다. 그런데 강리도 발문은 자기 이야기이다. 양촌이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니 많이 허술하여 그래서 검토 끝에 제작하게 되었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매우 겸손하게 말씀하신다. 이와는 달리 천문도에는 개인적 소회가 없다. 이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권영찬 회장은 그림 기록만 남긴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선홍 저자는 기록물 자체가 고마운 것이다. 만약 양촌 선생의 기록이 없었으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학자들이 토론했을 것이다. 기록이 없었다면 1402년에 아프리카를 그렸다는

것도 알 수 없다. 기록 있으니까 세계에 충격을 주고 놀라움을 준 것이다. 존경과 찬양을 받을만하다.

김현명 공동위원장은 선조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후손들이 몰라야 되겠는가. 강리도를 본 사람들은 모두 뿌듯해한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강리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들어가야 국가경영도 기업경영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릴 때부터 벽에 강리도를 걸어놓고 자란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보경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에 양촌 선생의 발문 덕분에 9월 첫째 주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선포했다. 9월 1일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홍 저자는 앞으로 국회 임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민간에서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권영찬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야 하는데 대종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홍 저자는 9월 7일 강리도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대종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전해주고 싶은 얘기

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한다. 또 가을에는 양촌 선생 묘소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영찬 회장은 양촌 선생이 지도 제작 과정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에 김선홍 저자는 강리도 제작에 대해 지휘자는 누구고, 기획자는 누구이며, 실무자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고 그렇다고 안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쨌든 양촌 선생 발문 때문에 지도의 날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자주 접촉이 필요하다. 지도의 날 추진은 국가기관에서 공동 주최한다. 그리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이렇게 대종회를 방문한 이유는 안동권씨 후손들부터 먼저 강리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라고 설명했다. 권영찬 회장은 지역별 모임 시 강리도 제작에 양촌 선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동영상을 번역하여 알리도록 하겠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피렌체 밀라노박물관 흉보동영상을 자막 처리하거나 더빙한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찬 회장은 안동 능동제사와 추원루 주변 일대에 안동김씨, 의성김씨, 하회류씨, 봉정사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역사문화성지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양 위원장님께서 국가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지 조성사업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한다.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여 역사문화성지의 필요성을 제기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홍 저자는 국회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이때 안동권씨도 참여를 부탁드린다. 강리도는 미래지향적이다. 발신하는 메시지가 크고 강하다. 뭐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강리도를 찬양한다. 한국에 대한 엄청난 흥보가 된다. 한국의 문화적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세계 최초 위대한 지도를 만든 사람에 대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코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명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배울 때 신라, 고려, 조선시대 외교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서양 것만 배우고 시련을 봤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와 양촌 선생의 입학도설 및 응제시 집주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현명 공동위원장은 입학도설의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때 배웠더라면 좀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며 양촌은 그래픽디자이너의 효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촌 선생에 대한 단행본 한 권도 없다는 것이 그저 놀랐다고 하며 대종회에서 출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정걸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권정걸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권정걸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장은 8월 16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가 경북지역의 힘든 상황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이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정걸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장은 "고향인 경북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대구경북안양지역도

민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해주시는 성금은 경북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공동모금회(회장 전우환)에서는 수해로 인해 재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호우피해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함께 추진하여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권정걸 대구경북안양지역도민회장은 안양종친회장이며 대종회 상임위원이다. 권희완 안양종친회 회장이(3측관절스원골프아카데미 원장)

## 제431주기 충민공 권중 금산군수 추모제향 봉행




제431주기 충민공 권중(權攄, 1554년 ~1592년) 금산군수 추모제향이 8월 8일 오전 11시 금산군 제일면 권충민공순절에서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하여 주민과 안동권씨 후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향교(라근대 전교)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주최측은 초헌관에 박범인 금산군수, 아헌관에 김기운 금산군의장, 종헌관에 김한중 유림원로를 분정했다.

충민공 권중 금산군수는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인 음력 3월에 금산군수로 부임해 충북 영동을 거쳐 아음을 타고 강을 건너 금산으로

쳐들어오는 왜군과 혈전을 벌이다가 아들 권준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충민공의 유곡충정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6월 22일 추모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권충민공순절비는 1878년(고종 15년)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파괴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현재 비각은 1974년 다시 세워졌다. 충민공은 조선 최초의 대제학인 양촌 권근 선생의 6대손이며, 삼촌이 영의정 권철이다. 총장공 권윤장군은 4촌 형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 해병대 안동권씨 전우회 추진 안내

### 해병대 안동 권씨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단 고 문** 권기수 (해병 176기)  
해병대안동전우회 회장(現)

**추진위원장** 권용선 (해병대 2사 5기)

**추진위원** 권영익 (해병 291기)


**추진위원** 권영학 (해병 502기)

**추진위원** 권응창 (해병대사관 70기)

**후 원** 월간 국방119  
대표 권경조 (해병 255기)

**연락처 : 010-8586-0255**

**발기예정일 : 2023년 12월 (추후 공지)**



## 권세현씨, 미스 인터컨티넨탈 한국 대회 '미' 수상



권세현 상하이(上海)아태영화공사 초청 배우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미스 인터컨티넨탈 한국 대회'에서 미(美)를 수상했다.

권세현씨를 포함한 입상자들은 세계 대회 출전 권한이 주어지고 국내외 홍보사

절로 활동하게 된다. 권씨는 지난달 4일 열린 미스 인터컨티넨탈 수도권 대회에서 미(美)를 수상한 바 있다.

권씨는 2019년 상하이아태영화공사 초청배우 선정, 남양주시 홍보대사와 상하이 소재 푸단(復旦)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권씨를 포함한 입상자들은 세계 대회 출전 권한이 주어지고 국내외 홍보사

## 권오석 준장 공군사관학교 초빙교수 부임



권오석 준장(교공과, 35세, 69년생)이 7월 31일자로 전역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선발되어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과 초빙교수로 부임하여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항공교통대에서도 수업을 진행한다.

권오석 장군은 공사 39기로 2005년 소령 시절에 조종사로서 최고의 기량과 덕목을 갖춘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뽑힌 바 있으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 단장과 공군본부 감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북 병화 선물이 고향인 권갑경씨의 장남이다. 권행완 편집국장